

# 兮谷 최순우 선생의 불화 · 불상 연구

김창균\*

- I. 머리말
- II. 최순우 선생의 불화 연구
- III. 최순우 선생의 불상 연구
- IV. 최순우 선생의 한국미술에 대한 審美觀
- V. 맺음말

## I. 머리말

해곡 최순우 선생과의 인연은 1979년 2월 대학 졸업과 함께 국립박물관으로 처음 발령을 받으면 서부터 시작되었다. 발령지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대면 인사를 다 마치고 근무를 준비하던 차 “김군, 자네 고향에 박물관이 개관되었으니 잠시 동안만 봉사해주고 오시게나”라는 말씀과 함께 그 해 3월 국립광주박물관(1978년 12월 6일 개관, 초대관장 ; 이을호)으로 파견근무를 명받았다. 첫 근무지라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하였던 탓도 있었겠지만 개관 초라서인지 전반적으로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매일 아침 진열장 점검 및 유물정리 업무로 개인적인 공부는 생각치도 못했다. 6개월 정도만 지나면 서울로 돌아가 처음에 꾸었던 꿈을 꿀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점점 멀어지고 나날이 시련의 연속으로 믿음을 저버린 채 1년여가 지난 1980년 5월 박물관을 떠남으로서 선생님과의 인연은 짧게 끝나고 말았다.

광주박물관 근무시절 6개월 정도가 지나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틈틈이 성북동으로 찾아뵈어 힘들다고 어리광부릴라치면 컵전을 맴도는 묵직한 중저음으로 “김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게나. 나는 자네를 믿네”라고 하시며 그윽한 눈길로 허허 웃어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비록 업무적으로는 짧은 만남이었으나 그 뒤로도 뵈 때마다 “잘 있지, 공부 열심히 하시게나”며 알려주시던 다정다감한 말씀은 지금까지도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메아리치며 길게 남아 있다.

---

\* 동국대학교(서울)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교수

선생께서는 30 세 때인 1946 년 국립중앙박물관 참사를 시작으로 미술사에 입문하시어 1948 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진급되어 보급과장, 미술과장,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실장을 거친 다음 1974 년부터 1984 년까지 10 년간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내셨다<sup>1)</sup>. 한국미술사 중에서도 주로 도자사와 일반 회화사 분야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감히 흉내 낼 수 없는 많은 흔적들을 남기셨으며, 「大英博物館의 李朝佛幀」(1962 년)을 비롯하여 불교회화 및 불교조각에 대해서도 『考古美術』, 『美術資料』, 『佛教美術』 등의 학술지와 『조사보고서』, 저서(『韓國美 한국의 마음』), 각 종 신문(「박물관신문」, 「독서신문」, 「서울신문」, 「동아일보」, 「한국일보」)기고 등의 꾸준한 발표를 통해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셨다.

이 지면을 빌어서나마 선생의 연구활동을 살펴보고 선생님만의 천부적인 심미안을 바탕으로 한 조성배경 및 화면 구성, 양식특징 분석, 심지어는 조성작가들의 의도 파악을 위해 어떠한 방법을 통해 접근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 최순우 선생의 불화 연구

선생께서 참여하신 본격적인 첫 번째 불교회화조사에 대해서는 1969 년 9 월 18 일부터 9 월 22 일 까지 있었던 1 차 조사와, 1970 년 8 월 16 일 시작하여 8 월 20 일에 끝마친 2 차 조사 결과물인 『한국의 불교회화』(송광사편)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sup>2)</sup>.

본 연구는 한국회화사 연구에 있어 기본자료의 調査集成과 그에 대한 細部考察의 필요성에 따라 5 개년 계획으로 기획된 기초작업으로서, 두 가지 年次調査事業인(전국 민간 소장 일반회화조사)와(전국 불교사찰 소재 불교회화조사)중의 하나이다.

선생께서 이렇듯 한국회화사 연구 진행에 있어 특히 불교회화에 주목한 이유로는 첫째, 한국불교회화사 연구의 좋은 계기가 된다는 점, 둘째, 고대 한국회화 발달의 요람이 초기 불교회화 발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초기적 발달 양상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古格을 이어왔다는 점, 셋째, 비록 근세기 불교회화의 표현기량이나 종교적 이념의 저조를 감출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남아 있는 수천의 조선시대 불화는 한국회화사 전반의 동태를 엿볼 수 있는 깊은 함축을 지니고

1) 혜곡 선생의 박물관사에 대해서는 최웅진, 「최순우론」 최순우 선생의 한국미술사 연구와 업적, 『한국미술사학과 개성학파』 한국미술사연구소 학술총서 35, 한국미술사연구소/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8. 6, PP.87-89 참조.

2) 『한국의 불교회화』, 국립중앙박물관, 1970. 12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연차계획 하에 이루어진 송광사 불화조사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조사자료의 집성이라기보다는 佛傳과 本生譚 주제, 각 존상별 주제, 밀교적 내용, 민간 무속신앙과 佛神이 혼성된 것, 國師 및 高僧 影幀 등 불화의 주제별 분류를 통해 불화의 현상과학과 함께 布置法 및 구성내용을 분석하고, 각 불화의 양식사적 해석에 목적을 두고 있음이 파악된다.

송광사 불화의 전반을 통해 보았을 때 ① 畫記에 중국 靑代 年號가 쓰이고 있는데 심지어는 일본 明治年號도 사용되고 있으며, ② 각 존상상의 표현에 있어 시대가 내려갈수록 적정한 비례 대신 과대하게 표현하고 있다. ③ 描線의 경우 雍正年까지는 원숙하고 활달한 필치이고 乾隆年間은 유려한 描線運筆이 특색인데 비해 이후 점차 필력을 잃어 힘이 부치는 느낌이 들며, 말기에는 필선이 굵어지는 경향을 띠어 회화적 격조가 떨어진다. ④ 색상 또한 강회·건륭년간은 적·녹색이 주조를 이루는데 이후 점차 청색이 많이 대두하며, 設彩에 있어서도 강회·건륭년간은 濃彩부분을 두텁게 칠하고 淡彩부분은 바탕지가 비칠 정도로 얇게 한다. 그러나 이후는 분별없이 일률적으로 농후하게 하는데 이는 불화 작가들의 품격을 드러낸 것으로서, 회화적 격조를 유지하고 있는 전기에 비해 후기에는 丹青匠들에 의해 凡俗한 화공들이 조성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⑤ 咸豐年間(1851-1861)에는 紅地에 金線으로 그린 金泥佛畫가 눈에 띄나 光緒年間(1875-1911) 초기 이후에는 소멸한다고 평가함으로써 구체적 양식분석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佛祖殿의 경우를 보면 남벽에는 중앙의 7 불도(삼신불+4 여래)를 중심으로 좌우로는 각각 53 불도 중 9 불도(향우측; 1~17 홀수 불, 향좌측; 2~8 짝수 불)를 배치하였으며, 동·서벽에는 각기 13 불씩(동벽; 20~46 불 짝수 불, 서벽; 19~43 홀수 불), 북벽 좌우측(향우측; 45~51 홀수 불+過去毘波尸佛, 향좌측; 48~52 짝수 불과 53 불+當來彌勒尊佛)에는 각기 5 불씩이 배치되어 있는데 佛의 모습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 그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서의 흥미로운 것은 자칫 간과하기 쉬운 佛의 모습을 머리 형태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으로서 전문가 못지않은 접근을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외의 단편적인 연구로는 1962 년의 「大英博物館의 李朝佛幀」과 1970 년의 「한국의 불교벽화」, 1973 년의 「국립박물관 소장 이조시대 초기 아미타삼존상탱화」와 「嘉靖乙丑年作 藥師如來三尊佛幀」, 1978 년의 「華嚴經卷의 表裝畫」 등이 있는데, 이 중 「대영박물관의 이조불탱」과 「가정을축년 작 약사여래삼존불탱」, 「화엄경권의 표장화」 세 편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대영박물관의 이조불탱」에 대한 발표는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시대 사천왕도 두 폭(도 1, 도 2)에 대한 연구로서<sup>3)</sup>, 본래 봉안 사찰명과 조성시기 추정에 짧은 내용이지만 깊이 있는 전문가적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3) 최순우, 「大英博物館의 李朝佛幀」, 『고고미술』 제3권 제9호 통권26호, 고고미술동인회, 1962, pp.286-287



도1 남방호세증장천왕도, 18세기  
영국 대영박물관 소장



도2 북방호세다문천왕도, 18세기  
영국 대영박물관 소장

두 폭의 천왕도는 南方護世增長天王圖(도 1)와 北方護世多聞天王圖(도 2)로서 남아 있는 畫記와 후에 써 넣은 화면의 落書 내용으로 보아 봉안 사찰명과 조성연대 추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며, 그림을 그린 화승이 持涓임을 알 수 있다.

봉안 사찰은 북방천왕도의 화기 내용 ‘……三月□□寺 本寺… 沈彦 戒永 覺性 彩彦(外 44 人)’ 가운데 ‘□□寺’의 지워진 두 글자 모두 ‘나무木면’의 흔적이 엿보이고, 남방천왕도 화면 낙서 중의 ‘칠국 스은이’와 순례자들 대부분의 거주지가 ‘대구’라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칠곡 송림사’로 추정하고 있다<sup>4)</sup>.

그리고 조성연대에 대해서는 남방천왕도의 화기 ‘嘉…奉安于…寺… 畫師持涓(外 9 人)…’ 가운데 첫머리 부분의 ‘嘉…’에 의해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嘉…’는 ‘嘉靖(1521-1566)’ 또는 ‘嘉慶(1796-1820)’ 중 하나로서, 만약 봉안 사찰이 ‘칠곡 송림사’라고 한다면 송림사의 경우 임진왜란 후 흥복한 점으로 보아 ‘嘉慶年間’ 조성 작으로 추정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가정을축년작 약사여래삼존불탱」(도 3)에 대해 박물관신문(1973. 4. 1)에

4) 최순우, 「大英博物館의 李朝佛幀」, p.287 참조.



도3 약사삼존불도, 1565년, 54×30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4 대방광불화엄경변상도, 754-755년,  
서울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발표한 경우에는 「국립박물관 소장 이조시대 초기 아미타삼존상탱화」라고 하여 도상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sup>5)</sup>.

그러나 곧 이어 학술지를 통해 「가정을축년작 약사여래삼존불탱」으로 정정 발표함으로써<sup>6)</sup> 실수를 인정하는 학자로서의 품위와 권위를 유지하였다고 하겠다.

작품에 대한 평가 역시 단순히 심미안적인 표현만이 아닌 畵記를 통해 본 조성배경 분석과 조성목적 및 중요성 파악과 함께 양식분석에 있어 통찰력을 보여준다. 특히 描線의 경우 “이 작품은 비록 소품에 불과하나 桴本으로 된 紺紙金泥 그림으로서 보존이 매우 희귀한 16 세기의 불화일뿐더러 고려시대 불화의 뛰어난 線描傳統이 비교적 완전한 면에서 착실하게 답습된 佳作이라고 할만하다. 고려시대 일부 불화가 삼약한 선묘로 기울었던 폐단에 비하면 이 작품은 전체 描線에 힘과 울동이 격조 있게 스며져 있으며, 경건하면서도 준엄한 얼굴에 범할 수 없는 거룩함이 깃들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신체 각 부의 비례도 시원스럽게 균형 잡혀있으며 佛壇 묘사에 그려진 寶相唐草紋과 蓮瓣紋도 매

5) 『최순우전집』 3권-회화, 학고재, 1992, pp.444-445 수록

6) 최순우, 「가정을축년작 약사여래삼존불탱」, 『불교미술』 1, 동국대학교박물관, 1973. 9. pp.117-118.

우 세련된 그 시대 양식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여<sup>7)</sup> 이 그림을 통해 조선 왕족들의 준엄하고 범할 수 없는 지체까지도 파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인의 이상적 타입을 비범한 손으로 이루어준 그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선생님만의 특출한 묘사라고 할 것이다.

현재 서울 삼성미술관 리움에 소장되어 있는 「화엄경권의 표장화」(도 4) 발표 역시 『화엄경』 표지 역할의 그림으로서 이를 화엄경변상도 七處九會 중의 ‘普光明殿 說法 장면’으로 파악하고, 보살상의 坐勢와 手相, 光背 등은 중국 唐시대 보살상의 묘법 및 양식과 공통점이 많을뿐더러 석굴시대다운 원숙한 솜씨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돈황 막고굴 제 148 굴 北龕의 보살상 등 중국 盛唐期 불화기법과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고 한 것은 전문가적 분석력을 입증해 준다고 하겠다<sup>8)</sup>.

특히 이 표장화는 <대방광불화엄경변상도>의 일부로서 寫經 跋文에 天寶 13년인 754년에 시작하여 이듬해인 755년 완성하였다는 기록과 함께 義本韓奈麻, 丁得奈麻, 夫得舍知, 豆烏舍 등의 화승들과, 同智大舍, 六頭品 父吉得阿滄 등 경전 표제를 쓴 筆師의 이름이 밝혀져 있어 미술사적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 III. 최순우 선생의 불상 연구

선생의 불상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이후 1970년대에 이르는 동안 신문지상(「독서신문」, 「서울신문」, 「동아일보」, 「한국일보」) 및 잡지(『세계』, 1960. 5)를 통해 발표한 자료와, 1980년에 펴낸 선생의 저서 『韓國美 한국의 마음』(知識産業社, 1980. 7 초판), 1992년 출간의 『崔淳雨全集』(學古齋, 1992)을 바탕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들 가운데 각 신문지상 및 잡지의 발표 자료 대개는 그의 저서 『韓國美 한국의 마음』에 수록되어 있고, 이는 다시 『崔淳雨全集』의 개설 및 논고, 사료해제, 명품해설로 분류하여 게재되어 있다. 이들 자료들 가운데 발표순서와는 관계없이 시대별 대표적 자료에 대해 저서와 전집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高句麗 金銅如來立像」으로 발표하신 내용은 익히 잘 알려진 고구려시대의 대표적 자료인 <延嘉 7年銘 金銅佛立像>(도 5)에 대한 견해로서 조성시기를 ‘연가 4년’이라고 하여 착오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중국 北魏式 불상 양식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상의 비례감과 조각 솜씨에서 우리의 체취를 찾아내고, 막연하게 ‘古拙한 미소’라고만 알려진 생경한 미소 속에서 때로는 초라해 보이기도

7) 최순우, 「가정을축년작 약사여래삼존불탱」, p.117 하단 참조.

8) 『최순우전집』 3권-회화, pp.446-449 수록





도5 연가7년명금동불입상, 539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6 부여 군수리 출토 석불좌상, 5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하고 때로는 어설퍼 보일지도 모르는 우리의 미소 즉, 한국의 마음을 찾아내고 계심은<sup>9)</sup> 저절로 나를 미소 짓게 한다.

이러 고구려시대 불교조각가들의 손에 의해 완전한 아름다움 같으면서도 뭉치 모를 아쉬움이 남겨져 있고, 더 손을 대려면 어디에 손질을 해야 할지 모를 신기한 매력을 지닌 삼국시대 불교조각이 움뚫었다고 보는 견지에서 「百濟 石造如來坐像」이 발표되었다. 이는〈부여 軍守里寺址 出土 石佛坐像〉(도 6)에 대한 연구로서 풍만하면서도 차분한 얼굴에 감았는지 뚫었는지 모를 소복한 눈매에 입가로 가냘픈 미소가 번져나는 고대 특유의 담소한 아름다움은 신비로움과 함께 은근함을 보여주며, 특히 불상의 裳懸座 형식은 일본 아스카시대(飛鳥時代; 538-710) 불좌상 양식의 원류를 알게 해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백제의 영향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는 일본 아스카시대의 대표적인 자료는 〈法隆寺 金堂 金銅釋迦三尊佛像〉(도 7)으로, 현재 연동리 미륵산 석불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益山 蓮洞里 石佛坐像〉에서 이와와 직접적인 교류가 확인된다.

9) 『최순우전집』 2권-공예·조각·건축, 학고재, 1992, pp.352-353 수록.



도7 일본 법륜사 금당 금동석가삼존불상, 623년,  
일본 법륜사



도8 익산 연동리 석불좌상, 600년경,  
익산 연동리 석불사

일찍이 이를 파악하고 발표하신 <益山 蓮洞里 石佛坐像>(도 8)에서 연동리 상과 법륜사 상을 통해 보이는 광배의 火焰寶珠와 合掌印의 化佛 및 裳懸座 등에서 서로 공통점이 보이는데<sup>10)</sup>, 이와 같은 양식수법은 중국 북위 太和 末年(490 년경)부터 경영이 시작된 중국 龍門石窟에서 주조를 이루는 것으로 연동리 상과 법륜사 상 간의 영향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특히 광배 뒷면의 명문으로 인해 623년 조성임이 밝혀진 법륜사 상에 비해 연동리 상의 경우 머리 광배가 훨씬 덜 의장화 하고 衣紋이 도안적인 경직감을 덜 드러내고 있는 점으로 보아, 법륜사 상보다 이른 시기인 6세기 초-6세기 말 조성 작으로 편년(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600년경 전후로 추정)하고 있음은 선생님의 혜안이라고 하겠다.

입상·좌상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하는 우리 불교조각 가운데 동세가 가장 뛰어난 예는 반가사유상이라는데 누구라도 동의하지 않는 이가 없을 것이다. 인도로부터 비롯된 반가사유상은 삼국시대에 시작되어 6-7세기를 걸쳐면서 유행하여<국보 83호 금동반가사유상>(도 9)과<국보 78호 금동반가사유상>(도 10), 서산마애삼존불 중의 반가사유상, 봉화 출토 석조반가사유상(경북대

10) 이 두 상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고승희, 「삼국시대 불상 광배문양과 일본 飛鳥時代 불상 광배문양의 관계성 고찰」, 『강좌미술사』 48호, 한국미술사연구소/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7. 6, pp.111-136 참조.





도9 국보 83호 금동반가사유상, 7세기 전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10 국보 78호 금동반가사유상, 6세기 후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소장) 등에서 세련의 절정에 이른다. 선생님께서는 이들 반가사유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색을 ‘사색하는 부처님으로서 깊고 맑은 정신적인 아름다움이 사실적 인체를 표현한 원숙한 조각솜씨와 오묘한 諧和(조화)를 이루는데 있다’고 보았으며, 이 반가사유상의 미덕은 슬픈 듯 슬피 보이지 않고 미소 짓는 듯 준엄한 기운이 입가의 미소를 간신히 누르고 있어서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거룩함을 빠져리게 해주는 데 있다고 하여 이를 통해 숭고함마저 느끼고 있는 선생님의 감성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반가사유상은 ‘인자스럽다, 슬프다, 너그럽다, 슬기롭다’라는 표현들이 모두 하나의 화음으로 빚어진 듯 머릿속이 저절로 맑아오는 것 같은 심정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바로 중생제도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하여 어리석은 중생으로서 환희심 느끼는 솔직한 마음 표현의 정점을 찍고 있다고 하겠다.



도11 군위 아미타여래삼존 석굴, 통일신라시대, 경북 군위

선생의 불교조각 연구의 클라이맥스는 <군위 석굴>과 <경주 석굴암>의 석굴에 대한 연구로서, 석굴의 구조 및 편년과 내부 봉안 상의 조형성 및 양식특징 파악 등 학술적 분석과 더불어 선생의 뛰어난 심미안을 바탕으로 한 각 상들의 특징 기술이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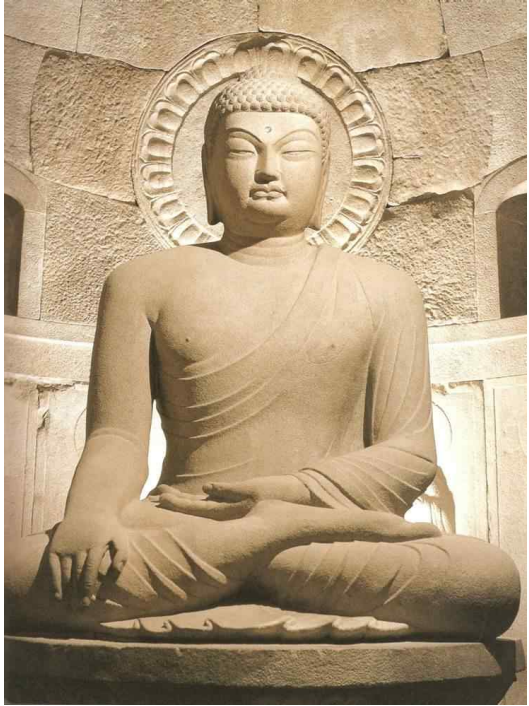
<군위 아미타여래삼존 석굴>(도 11)은 수십 미터의 斷崖에 자연암굴을 다듬어 마련한 석굴로서, 항마촉지인을 지은 본존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관음보살상과 대세지보살상을 배치하여 아미타삼존 불 형식을 이루고 있다. 양어깨를 다 덮은 通肩衣를 착용하고 백제로부터 시작한 고식의 裳懸座 위에 결가부좌하고 앉아 있는 본존불의 경우 체구는 雄偉한데 사실성이 결여되었으며, 얼굴은 풍만하여 원만형이나 아직은 삼국시대의 근엄함과 순후함이 엿보인다.

좌우협시보살상은 장신의 입상으로 풍만한 체구에 명량한 상호와 삼곡자세의 율동미가 엿보이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는 삼국시대 말기의 金銅像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삼존 배치는 삼국기의 龕室形 磨崖三尊佛 양식을 벗어난 석굴 경영과 圓像 봉안의 새로운 단계를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그리고 백제 하대의 석상 및 금동상과의 친연성을 보이는 삼존불상은 삼국기의 시원적인 模作期를 벗어나 신라에 의한 석조 양식의 획득과 기법 습득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룩된 것으로, 7세기

후반의 과도적 작품으로 편년을 설정한 것은 선생의 탁견이라고 하겠다.

〈경주 토함산 석굴암〉은 신라 경덕왕(재위 ; 742-765) 때 세워진 축조석굴로서 방형 前室과 원형 本室로 이루어 졌는데, 전실과 본실에는 본존불상을 비롯하여 모두 38 구의 상이 남아 있다. 전실에는 팔부신중상이 좌우로 늘어서 있으며, 인왕상과 사천왕상을 지나 이르는 본실에는 본존불을 중심으로 주위에 제석·범천상과 문수·보현보살상, 십일면관음보살상, 십대제자상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돛 형식의 위층에는 10 개의 소형 감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두 개의 감실은 비어 있고 관음·세지·지장보살 및 유마거사 등 8 구의 상만 남아있다.

東海口로 침범하는 적을 물리치기 위한 호국적 성격의 降魔窟로 알려져 있는 석굴암의 본존불상(도 12)은 右肩偏袒에 降魔觸地印을 지은 석가여래상으로 偉丈夫形 얼굴은 신라인들이 理想하는 남성미를 나타낸 것이며, 본존불상 뒷면의 11 면관음보살상(도 13)의 얼굴은 신라 여성들의 높은 절조와 청정함을 풍기는 여성미를 상징한다. 그리고 제석천(도 14)·범천상(도 15)과 문수·보현보살상 역시 우리 민족이 理想하는 여인상으로 준엄한 듯 입가에 간신히 풍기는 이름 모를 미소와 맑고 청정한 이마, 기품 있게 반개한 두 눈길과 오뚝한 코 밑에 단정하게 여며진 작은 입가로부터 도톰한 두 볼로 번져가는 결국한 아름다움이 야말로 인도 미인도 당나라 미인도 닮지 않은 신라 여인의 얼굴임이 틀림없다고 하겠다. 또한 가냘프고도 풍만한 여체의 아름다운 곡선미가 얇은 비단 옷 주름 속에 맥맥이 감추어져 있는 듯한 모습은 동경하는 신라 여인들의 애뜻한 자태라고 해두고 싶다. 이로써 천부상들이 지닌 아름다움은 예사로 보아 넘길 수 없는 존엄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도 경주에서는 천부상이나 보살상을 연상시키는 옛된 여인들의 정제된 모습을 볼 수 있으니 미술에 나타난 숨길 수 없는 민족양식이란 참으로 고마운 것이라고 해야겠다. 고 끝을 맺음으로써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해곡 선생만의 애뜻함과 절절함이 투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도12 석굴암 본존불상, 8세기 중반, 경북 경주 토함산 석굴암





도13 석굴암 11면관음보살상



도14 석굴암 범천상



도15 석굴암 제석천상

#### IV. 최순우 선생의 한국미술에 대한 審美觀

혜곡 최순우 선생의 연구는 그동안 고유섭 선생의 영향을 크게 받아 감상적이고 심미안적인 묘사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선생의 많은 연구자료 중 대략적인 면만 살펴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천부적 심미안과 경험을 토대로 한 높은 식견이 파악되며, 학문적 안목을 바탕으로 조성배경 및 화면 구성, 양식특징 분석, 심지어는 조성작가들의 의도까지 파악하기 위해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생의 한국미술에 대한 美觀은 우리 미술의 경우 順理의 아름다움, 淡調의 아름다움, 익살의 아름다움, 바라보기 위한 아름다움, 분수에 맞는 아름다움, 고요의 아름다움이라고 제시한 여섯 가지

특질을<sup>11)</sup>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 특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순리의 아름다움’이란 자연의 섭리를 거역하지 않는 아름다움의 자세, 즉,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으로서 분수에 맞는 아름다움과도 상통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의 예로 있는 그대로의 자연재료를 꾸밈없이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보여주는 ‘덤벼주초’와, 굵은 것은 굵은 대로 곧은 것은 곧은 대로 잘 살리는 한국인들의 自然愛와 자연에 대한 畏敬을 통한 순리의 아름다움의 표현<sup>12)</sup>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생께서는 이를 한국미술의 맛은 마치 조출한 샘터에서 솟아나오는 맑고 담담한 샘물처럼 싱겁고 혜식은 듯도 싶고, 또 때로는 고향의 냉수 것처럼 잊을 수 없는 순정과 자연스러움이 스며있다고 하고 싶다고 표현하였다<sup>13)</sup>. 이는 어쩌면 ‘무관심성’<sup>14)</sup> 및 ‘자연에의 순응’<sup>15)</sup>과도 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다.

미술이란 표면적인 형식과 양식 분석도 분석이지만 왜 그렇게 나타내었으며, 무엇을 바탕으로 하여 그렇듯 표현하였는가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한 면에서 해곡 최순우 선생께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천부적인 감상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심미안으로 주옥같은 어휘를 구사하여 표현함으로써<sup>16)</sup> 그만의 연구가 더욱 돋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V. 맺음말

지금껏 ‘炡谷 최순우 선생의 불화·불상 연구’라는 주제를 통해 선생의 불화 및 불상 연구, 그리고 선생의 한국미술에 대한 審美觀을 살펴봄으로서 선생의 연구활동을 알아보고 선생만의 천부적인 심미안을 바탕으로 한 조성배경, 및 화면 구성, 양식특징 분석, 심지어는 조성작가들의 의도 파악을 위해 어떠한 방법을 통해 접근하였는지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불화연구에 있어서는 단순히 심미안적인 표현만이 아닌 書記를 통해 본 조성배경 분석과 조성목

11) 최순우, 『한국미술의 흐름』, 현암사, 1978(『최순우전집』 1권-총설, 도자기, p.38 수록).

12) 김용호, 「최순우의 한국미술사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30 참조.

13) 최순우, 「한국미의 서설」, 『한국미』 한국의 마음, 지식산업사, 1980

14) 고유섭, 「조선 고대미술의 특색과 그 진승 문제」, 『韓國美術史及美學論考』, 통문관, 1962, pp.6-8(『조선미술사』, 열화당, 2007, pp.20-21 수록) 참조.

15) 백기수, 『미의 사색』,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1, p.76 참조.

16) 선생의 어휘력 구사에 대해서는 김정아, 「최순우의 ‘한국미’ 서술에 나타난 어휘 분석」-메타비평의 시각에 입각하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p.28-73 참조.



적 및 중요성 파악과 함께 양식분석에 있어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불상 연구의 경우에 있어서도 상의 조형성 및 양식특징 파악 등 학술적 분석과 더불어 선생의 뛰어난 안목과 식견을 바탕으로 한 각 상들의 특징 기술로 선생의 양면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선생의 많은 연구자료 중 대략적인 면만 살펴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천부적 심미안과 경험을 통해 터득한 미의식을 토대로 한 묘사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한 학술적 접근을 결코 도외시 하지 않음으로서 깊이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연구 의의를 둘 수 있겠다.

---

### 주제어(Key Words)

금니불화(金泥佛畫, Painting of Gold line), 선묘(線描, Lineal Drawing),  
고졸미소(古拙微笑, Archaic Smile), 상현좌(裳懸座, Skirt upon a Pedestal),  
심미관(審美觀, View of Aesthetics)

## 〈참고문헌〉

- 고승희, 「삼국시대 불상 광배문양과 일본 飛鳥時代 불상 광배문양의 관계성 고찰」, 『강좌미술사』 48호, 한국미술사연구소/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7
- 고유섭, 「조선 고대미술의 특색과 그 진승 문제」, 『韓國美術史及美學論考』, 통문관, 1962 (『조선미술사』, 열화당, 2007, pp.20-21 수록).
- 김정아, 「최순우의 ‘한국미’ 서술에 나타난 어휘 분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문명대 외, 『최순우 선생의 생애와 학문세계』, (사)한국미술사연구소, 2016. 6
- \_\_\_\_\_, 『한국미술사학과 개성학파』, (사)한국미술사연구소, 2018. 6
- 문명대, 「최순우 선생의 생애와 학문」, 『최순우 선생의 생애와 학문세계』, (사)한국미술사연구소, 2016. 6
- 백기수, 『미의 사색』,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1
- 심영옥, 「최순우의 韓國美的 思想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_\_\_\_\_, 「최순우의 韓國美觀에 의한 韓國美的 특징 연구」, 『현대미술연구소논 문집』 7권, 경희대학교 현대미술연구소, 2004
- \_\_\_\_\_, 「韓國美的 주요 특징 연구-최순우의 견해를 중심으로-」, 『동양예술』 13호, 한국동양예술학회, 2008
- 정수진, 「최순우의 美術觀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최순우, 「大英博物館의 李朝佛幀」, 『고고미술』 제3권 제9호 통권26호, 고고미술동인회, 1962
- \_\_\_\_\_, 「가정을축년작 약사여래삼존불탱」, 『불교미술』 1, 동국대학교박물관, 1973
- \_\_\_\_\_, 『韓國美』 한국의 마음, 지식산업사, 1980
- 최응천, 「최순우론」 최순우 선생의 한국미술사 연구와 업적, 『한국미술사학과 개성학파』 한국미술사연구소 학술총서 35, 한국미술사연구소/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8
- 『최순우전집』 1권-총설 · 도자기, 학교재, 1992
- 『최순우전집』 2권-공예 · 조각 · 건축, 학교재, 1992
- 『최순우전집』 3권-회화, 학교재, 1992
- 『한국의 불교회화』, 국립중앙박물관, 1970

## 兮谷 최순우 선생의 불화 · 불상 연구

김창균

혜곡 최순우 선생은 30 세 때인 1946 년 국립개성박물관 참사를 시작으로 미술사에 입문하시어 1948 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전근되어 보급과장, 미술과장,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실장을 거친 다음 1974 년부터 1984 년까지 10 년간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내셨다. 선생은 한국미술사 중에서도 주로 도자사와 일반회화사 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았으나, 불교회화와 불교조각에 대해서도 학술지와 보고서 및 신문을 통해 꾸준한 발표를 함으로써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셨다.

주 연구분야가 아닌 불화연구에 있어 심미안적인 표현만이 아닌 畵記를 통한 조성배경 및 조성목적 파악, 불화 조성의 중요성 및 양식분석에 있어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불상 연구의 경우에 있어서도 상의 조형성 및 양식특징 파악 등 학술적 분석과 더불어 뛰어난 안목과 식견을 바탕으로 한 각 상들의 특징 기술로 선생의 양면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다.

선생의 연구자료 중 대략적인 면만 살펴보아서도 파악할 수 있듯이 그의 천부적인 심미안과 경험을 통해 얻어진 미의식을 토대로 묘사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한 학술적 접근 또한 결코 도외시 하지 않음으로서 깊이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데 연구 의의를 들 수 있겠다.

| Abstract |

## A Study on Hyegok, Choi Sun-wu's Buddhist Paintings and Buddhist Statues

Klm, Chang-kyun

Prof. Dongguk University

Hyegok, Choi Sun-wu entered into art history as a position of Chamsa at the National Gaeseong Museum in 1946 when he was 30 years old. After being transferred to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n 1948, he was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for ten years from 1974 to 1984 after passing through the supply department director, art director, curator, and chief curator. He was interested in ceramic history and general art history in the Korean art history. However, he expressed great interest in Buddhist paintings and Buddhist sculptures by making steady presentations through journals, reports and newspapers.

In the Buddhist study, which is not the main field of his study, he shows not only the aesthetic expression but also the insight in grasping the background of the composition purpose, importance of composition of Buddhist paintings, and style analysis. Also, in the case of studies of Buddhist paintings, both sides of his can be found by the feature description of each image based on outstanding insights and discernment in addition to academic analysis such as formality and style characterization of the image.

As can seen from a rough look at his research,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while he focuses on depiction based on his aesthetics and aesthetic awareness obtained through his eye for the beautiful and experience, at the same time, it is confirmed that his academic approach based on high level of insight is also inseparable and shows deep results.

논문투고일 2018년 10월 22일 | 논문심사일 2018년 11월 2일 | 논문심사완료일 2018년 11월 23일

